

한국문학자가 본 한국의 일본연구

김 태 준*

目 次

1. 경계를 넘어서
 2.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 2-1. 일본문학사 비판
 - 2-2. 白樂天과 杜甫의 경우
 3. 방법의 시각에서
 - 3-1. 전쟁, 《流星は生きてる》와 《國家の品格》의 경우
 - 3-2. 한·일 학계의 성과
 4. 마무리
-
-

1. 경계를 넘어서

1-1. 지난달에 한국의 인문학계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들의 ‘인문학의 위기를 벗어나자’는 선언에 이어, <열림과 소통으로서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인문주간’ 행사를 열어 인문학 관련학자들의 책임과 결의를 공개리에 천명한 바 있다. 인문학은 사람의 가치와 삶의 뜻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그러기에 인문학이 학문의 지하수에 비교되는 것은 인문학의 이런 생명 기능 때문이다. 인문학의 사람 이해는 윤리와 사회 규범의 바탕에 이바지한다는 이상에서 내가 전공한 한국학으로서 한국문학은 여러분의 일본학과 함께 하나의 인문학일 터이며, 이것이 한국학과 일본학을 함께 말해보자는 오늘의 학술 계획일 터이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일본학과 한국학이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학문의 이상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제 근대가 이룩한 문명의 결과로 사람들은 민족주의와 전쟁과 굶주림, 자연파괴의 반생명, 반인문주의의 문명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사회와 자연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와 자연의 역습에 맞닥뜨렸다. 이런 탈근대의 명제로서 인문학의 대안은 중세의 부활이나 생명학으로서 인문학의 부활을 부르짖게 되었고, 인문학은 탈근대의 활로를 통합학문에서 찾고 있다. 한국문학자를 불러 일본학과 접점을 모색한다는 생각도 이런 한 시도일 터이며, 이런 시도 그것이 벌써 경계를 넘는 열린 사고의 출발임에 틀림없다.

나는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한국 사람의 중국여행기를 다룬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서, 나름대로 동아시아를 한 묶음으로 하는 문학의 체계 같은 것을 한 발짝 먼저 생각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나는 1970년대 초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대학의 비교문학비교문화과정에서 청강하였는데, 지금은 비교학이 학문의 체계나 방법으로 상식이 되었지만, 초기의 비교학은 복수의 문학이나 문화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새로운 방법론이며 학문분야였다. 학문에서 비교의 방법은 서로 다른 문학이나 문화 사이의 동질성에 주목한 때문일 터이며, 이런 비교의 방법은 비교언어학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일찍부터 주목된 방법론이고 학문분야였다.

1-2. 학문의 경계는 학문 개념의 근대주의의 한계와 경계 허물기의 양쪽에서 모두 극복이 모색된다. 한때 일문학과에 소속된 바도 있었던 체험을 되살려 일본학 연구의 가능성을 말한다면, 먼저 한국의 연구자가 일본학을 한다는 기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 사람에게 자국 문학인 일본문학은 한국 연구자에게는 외국문학이라는 당연한 자각이 요구된다는 말로 바꾸어 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자각은 일본이란 연구 대상을 그 자체로써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런 관점이 방법적 자각과 함께 일본의 학계와는 다른 연구의 시각과 연구의 지평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의 역사문제가 가로놓여 있고, 민족주의라는 근대의 질곡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관용’이 요구되며, 이것이 문명이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이 인류사의 이상임에 틀림없지만, 새로운 질서 목표로 떠오른 이른바 세계주의는 무역전쟁과 패권주의로 더 커다

란 경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인식에서 한국의 일본학은 일본학계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일본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더욱 안 되며, 일본학계와는 다른 목소리, 비판적인 연구 시점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에서 일본학이 생긴지 벌써 반세기 이상이 지나고, 이제 제3세대가 학계의 중견이 되어 있다. 전국의 대학마다 일본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일본 관련 학회의 회원은 한국학관련 학자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한다. 그런데 독창적 일본학을 세운 학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일본 학계에서도 주목할 저서를 일본에서 낸 학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헤아려 보면, 이 초라한 현실이 한국 일본학의 현주소일 터이다.

2.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2-1. 일본문학사 비판

나는 일본 전공자와 함께 加藤周一의 《일본문학사서설》¹⁾을 공역해 낸 바 있다. 그런데 加藤周一의 주저의 하나로서 이 책은 일본학계의 많은 전공자들의 보수적인 입장과는 달리, 문학사를 사회사와 사상사와 관련시키면서 포괄적인 문화사의 경지까지 높인 책으로 특히 외국의 독자들에게서 격조 높은 책으로 평가되었다.²⁾ <일본문학의 특징>을 잘 요약한 이 책의 서장만을 잘 읽어도 우리는 한국의 연구자가 일본문학에서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된다. 국문학자 조동일 교수는 1993에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서울대 출판부)이란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에 나온 한·중·일 문학사 전부를 비교하는 문학사 비교론을 펼치면서 일본문학사 전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고, 이런 방대한 작업은 한국의 일본학 쪽에서는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시도였다.

1) 加藤周一저, 김태준·노영희 역, 『日本文學史序說』 2권, 1995.3-1996, 1. 초판. 시사일본어사.

2) 趙東一교수(서울대)의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1993)에서 집중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조교수는 《한국문학통사》(제4판, 전6권)의 저자로 동아시아문학사와 세계문학사를 쓰면서, 1890년 이래 발간된 일본문학사 20종의 다른 모든 저작과 비교해서 小西甚一의 《日本文藝史》와 함께 가토 선생의 문학사서설에 주목하면서, 이 책을 학문적 엄밀성과 포괄적 시야를 갖춘 일본문학사 서술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했다. 가토의 이 문학사서설의 한국어 번역은 7번째 언어로 된 번역이다.

나는 가토씨의 80세를 기념하여 열린 가토슈이치 국제회의에서 《일본문학사서설》을 논하여 그의 일본문학의 특징론을 한국문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판한 바 있다.³⁾

가토씨는 먼저 일본문학의 구실에 언급하여, 일본문화의 중심에 문학과 조형예술이 있고 이런 구체적 문학예술이 철학의 구실까지를 대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밝혀, 문학조차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온 중국문학의 경우와 비교했다. 가토씨가 명쾌하게 정리한 <일본문학의 특징>은 이것을 한국문학의 경우와 비교하면, 과연 그 특징이 한층 두드러짐을 실감할 수 있다.⁴⁾ 일본보다 수 세기 앞서는 긴 역사를 가진 한국문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문학이 文史哲을 포괄하는 넓은 뜻에서 문화의 중심이었고, 사상혁신의 주역들은 철학에서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커다란 구실을 했다. 문학의 역사적 발전형태는 사상과 양식의 혁신을 통해서 문학사의 전통을 쇄신해왔고, 언어와 그 표기는 사상과 사회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도록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형화하였다. 문학 담당층은 한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대도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방에 고루 흩어져 있어서 자주 현실 비판적이었으며, 출판 또한 지방에서 주도했다.

이렇게 가토씨가 5가지로 들어 말한 일본문학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만을 들어 한국과 비교해보면, 그 사회사적 관심에서 문학 작가층의 求心的 경향을 지적하는 곳에서도 두드러지고, 또 작가와 문학의 도시집중과 집단적 성격, 한정된 소재와 함께, 당연한 결과로 비판정신의 결여를 지적하게 된다. 일본 근대문단이 만들어 낸 이른바 ‘私小説’은 이런 일본문학의 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결과라 할 만하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보편지향적이면서, 오히려 중국보다 더욱 문학과 철학, 문학사와 사상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온 전통에서 일본과 달랐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특징으로 지적된 <언어와 그 표기>의 경우를 한국어와 비교하면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 두 나라 말은 한문과 자국어틀 함께 써온 역사나 자국어의 어순에서 전적으로 일치하면서, 지적된바 문화적·문학적 특징에서는 아주 다른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한·일 두 나라 말은 “극도로 발달한 경어체계”와 주어를 자주 생략하는 표현법 등에서 거의 일치하는 구조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언어와 그 표기

3) 김태준; <韓國における『日本文學史序説』-日本文學の特徴とそのアジア的普遍性をめぐって, 加藤周一/R.ドーア監修;《日本を問い續けて》, 岩波書店, 2004.

4) 위의 글 참조.

상의 특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短詩型 敍情詩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短歌形式이 일본처럼 짧아졌다는 등식이 서지는 않는다.⁵⁾ 더구나 “꾸밈말을 명사 앞에 놓고 動詞를 맨 마지막에 두는” 語順에서 두 나라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이 언어의 구조로 문화의 구조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토 선생은 일본어의 구조가 “부분에서 시작하여 전체로 향하고 그 반대는 아니며, 이것이 일본 건축의 구조이며 일본 문화의 어순”이라고 했다. 형식논리상 아무 모순이 없고 명쾌하다. 그러나 일본어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중국어나 서양어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같은 구조의 한국어, 한국문화와 비교해서도 타당한 특징이라야 설득력을 더할 것이다.⁶⁾ 이런 문학사 비판 연구는 한국 쪽에서는 조동일 교수의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과 나의 글 등 두 편이 모두 국문학 쪽에서 나와 있다.

2-2. 白樂天和 杜甫의 경우

가토 씨는 일본 사상의 변화를 일본문학사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네 번에 걸친 문학사의 전환기를 모두 외래사상과의 관련의 역사로 상정하고 있다. <최초의 전환기>(제2장)는 ‘대륙문화’를 받아들여 ‘일본화’하고, <두번째 전환기>(제 4장)는 또한 중국불교의 두 과인 정도종과 선종이 일본에서 갑자기 일어난 13세기의 일이라고 했다. <세 번째 전환기>(제6장)는 서양과의 접촉으로 다루어졌고, <네 번째의 전환기>(제9장, 제10장)는 서양과의 밀접한 관련에서 다루어지고 있다.⁷⁾ 여기서 외래의 사상적 자극이 문학사 발전의 계기라고 본 점은 앞 시대의 문학사에서 크게 달라진 바이지만, 외래사상의 일본화가 시대전환의 계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으로서 사상의 변화와 사회 혁신의 변화가 일본 역사 내부에서 잘 밝

-
- 5) ‘시조’라고도 하는 한국의 短歌는 짧은 것으로 3줄 45음절이 기본형이고, 여러가지長型이 있다.
- 6) 이렇게 일본문학의 특징을 강조하는 보기는 비교문학적 방법을 표방한 小西甚一の 《日本文藝史》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문학의 특징으로 ①짧은 형식 ②대립이 첨예하지 않음 ③主情性. 內向性이 두드러짐을 들고, 외국문학과 비교하여, 일본문학이 단형인데 대하여 서양문학은 장형이며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은 중형이라고 했다. (卷 II, p.113.)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한국문학의 경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7) 여기서 네 차례의 전환기를 두 차례의 불교적 영향과 두 차례의 서양 관련으로 상정하면서 신유학의 영향을 배제한 것은 문학사상의 실상이나 세계관의 배경을 논한 뒤쪽의 서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혀져 있는가?. 이점이 좀더 밝혀져야 문학이 사상사의 구실을 대행한다는 전제와 일본문학사의 변화를 추동한 근간을 모두 외래사상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문학사 서술의 실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이때 ‘외래문화를 일본화’ 하는 근본 혹은 ‘토착세계관’이란 무엇인가?.)⁸⁾

그리고 한편 십 수세기에 걸친 오랜 중세시대에 공유한 동아시아의 공통어문(漢文)과 보편종교(佛敎.儒敎),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발했던 문화교류의 역사, (서구화의 충격까지를 포함해서) 가토 문학사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여러 차례의 전환기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본문학, 일본문화의 새로운 이해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는 가토 선생이 “儒者의 한시는 그 대부분을 버리고, 농민의 자기표현은 一揆의 檄까지도 취했다”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에 전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가토 문학사에서 설정한 최초의 전환기를 통해서 일본이 대륙문화를 ‘일본화’한 방식에 주목하면, 우선 중국문학 중의 문학이라 할 漢詩에서 일본은 단연 白樂天의 독무대였다는 흥미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白詩의 평명한 말과 온아한 성격, 그리고 특히 불교에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이 일본 사람들의 취향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작가의 생존시에 일본에 전해져서 문학의 교과서, 문학 사전의 자리에 있었을 정도였다 한다. 그래서 《源氏物語》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文集’이나 ‘集’으로 통했다. 11세기초에 편찬되어 수백 년간 일본문학의 교과서였다는 《和漢朗詠集》(2권)은 이곳에 실린 중국 한시 234수 가운데서 백낙천의 시가 139편을 차지하여 두 번째인 元稹(11편)을 아득하게 뛰어놓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인의 시 가운데 李杜의 두 대가가 한편도 뽑히지 않았다는 것⁹⁾과 비교하면, 백낙천에 대한 열애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한시문학의 전개의 획기는 白詩의 일본 전래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¹⁰⁾ 그리고 백낙천의 시도 장편의 이 시 가운데 120줄에서 단 2구만을 뽑아서 短歌化하는 식이었다고 하므로, 시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나 형식을 무시하고 이런 ‘對句농기’만을 수용한 방식이야말로 이른바 ‘한시의 일본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동아시아적 안목을 缺하고 있고, Arthur Weley 등처럼 일본 시단의 수준을 말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8) 여기서는 가령 內藤湖南의 “シナ文化 ニガリ論”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日本文化とは何ぞや>(その一), 《日本文化史研究》(上) 講談社.1976.

9) 加藤周一, 앞의 책, 권 I. p.157.

10) 小西甚一, 앞의 책, II, 漢詩文の表現.

한편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연히 李杜, 그중에도 杜詩의 수용은 한국문학사상에서 중국문학을 대표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杜詩는 중국에서도 盛唐期에 정점으로 평가되었고, 中晚唐을 거쳐 송나라 때에는 아예 시 공부의 모범으로 여겨져서 이러한 사조는 조선 시단에도 전해졌다. 高麗朝에서부터 그 전통을 후대까지 이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두시는 높은 주제의식과 정치한 用事, 그리고 박력있는 詩格을 갖춘 데다가, 전쟁의 체험은 인간의 근원적 비애를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까지 표현한 것으로 이름 높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탠다면, 몇 년 전 제자들과 함께 杜甫 草堂을 방문하고 받은 감격과 흥분은 스스로 문학공부를 하며 느낀 최고의 감명이었고, 이것은 아마도 한국문학사 속에 살아있는 두시수용의 전통과 무관한 것이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에서 두보나 백낙천을 힘써 수용하던 시대인 10세기 중엽 한국의 高麗朝에서는 당나라의 科擧制度를 받아들여 한문학적 교양이 크게 진작하였을 뿐 아니라, 이 문학적 사회제도의 발달과 함께 두시가 더욱 풍미하였다. 특히 두시에 관한 시험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실제로 李退溪가 과거에 응시했을 때에도 두시를 논평하라는 과제가 출제되어, 그는 ‘詩史’의 뜻으로 해석한 보기가 보인다. 그리고 15세기 朝鮮朝에서는 나라의 주관 아래 전국의 대표적 시인을 망라해서 두시 거의 전부를 諺解하여 출간하고 重刊하는 열의를 나타냈다(《杜詩諺解》 27권 17책). 이런 한시 수용의 차이는 白詩의 낭만시와 杜詩의 사회시를 선호한 각 나라의 문학적 기호 밖에도, 과거제도의 시행여부와 같은 문학 사회학적 환경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¹¹⁾ 李杜의 두 대가를 한편도 뽑지 않았다는 짧은 기술 뒤에는 이런 동아시아적 관련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방법의 시각에서

3-1. 전쟁, 《流星は生きてる》와 《國家の品格》의 경우

3-1-1. 《일본문학사서설》을 쓴 가토는 스스로 일본문학사를 쓴 동기로,

11) 일본에서 白詩의 유행과 그 성격에 대하여는 小西甚一, 《日本文藝史》 II.p.123-456에 자세하여 참고하였다. 拙稿, <과거제도와 동아시아 문학의 사회사> 別卷 《比較文学》 1998, 한국비교문학회에서 이 문제를 살핀 바 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일본인의 사고 방식, 감수성 등을 문학을 통해서 밝히는” 목적을 고백한 바 있다.¹²⁾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문학사를 전쟁 전까지로 끝내고, 전후의 일본문학사를 쓰지 않았다. 그는 전후의 일본문학사가 “문학사서설의 ‘부록’일 수는 있으나, 그 일부일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¹³⁾ 이런 언설도 이런 고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것은 자국문화의 특수성을 배타적으로 옹호해온 오랜 전통 속에서 일본문학사를 쇄신하려는 노력 속에, 이른바 근대화과정과 두 번에 걸친 전쟁과 ‘전후’체험이 부담으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치 이후 일본문학이 풍속소설과 사소설의 감각적 기교적 경향을 정통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일찍이 일본에는 유토피야 사상이 이룩될 수 없었다고 지적한 것은 일본 최후의 양심이라고 불린 사상가 藤田省三이었다.¹⁴⁾ 이런 점에서 일본문학에서 비판정신이나 이상사회를 설계하는 문학이 나타나지 못한 경향에 주목할 만하고, 특히 일본의 과거사청산 등에서 한국의 일본 연구가 외국연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터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盧英姬 교수가 발표한 <遺書로 쓴 귀환기록-《流星は生きてる》>는 藤原てい(1918-)라는 일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 이야기와 여성의 여행 글쓰기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관심을 끈다.¹⁵⁾ 여성의 전쟁체험, 패전국 여성으로 후지와라 테이의 고난의 귀향기록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주목할 작품이다. 1년이 넘는 테이의 천신만고의 旅程은 남편의 任地인 만주의 新京[長春]에서 奉天[瀋陽]과 安東[丹東]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땅의 宣川¹⁶⁾에 이르고, 38선과 開城과 釜山을 거쳐 현해탄을 건너는 동아시아에 걸쳐있다. 1년여에 걸친 이 긴 귀환의 여정 가운데서도 특히 후지와라 테이는 조선인과의 만남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학지리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 겪은 흔치 않은 전쟁 체험의 실화이면서, 특히 전쟁의 패자가 된 패망국의 국민으로서 지

12) 加藤周一, <대담, 한·일의 근대경험과 연대모색>. 《創作과批評》 1994. 겨울호.

13) 加藤周一, 앞의 책, 후기.

14) 그의 책 『全體主義の時代經驗』이 번역되어 있다.(藤田省三 지음, 이홍락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8.

15) 盧英姬; <遺書로 쓴 여성의 귀환기록-《流星が生きてる》, 동아시아 比較文化國際會議 國際심포지움 발표문, 中国 上海, 復旦大学, 2006. 9.

16) 宣川은 조선 평안북도 선천군의 郡 소재지로, 京義線이 통과하는 농산물의 집산지. 일찍이 미국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지의 하나.

금까지 식민지였던 조선 땅을 지나며 밥을 구걸하며 연명을 해가는 여행과 체험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여성의 귀향, 곧 ‘여성의 여행의 글쓰기’라는 점과, 고향인 長野현 諏訪로 돌아와 거의 초죽음에 이른 병마 속에서 기억으로 재구된 구술사적 성격의 글이라는 점도 중요한 뜻을 가진다. 지은이 스스로 遺書처럼 쓴 글이라는 고백에서 짐작하듯,¹⁷⁾ 드물게 보는 이 여성의 전쟁체험이 중요한 여행지로서 조선의 선천과 같은 지방의 문학지리에 주목하게 한다. 그미에게 특히 선천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지리였던 것은 귀향 도중 이곳에서 승전국으로 러시아 당국의 귀국허가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알게 된 한 가닥의 노래가 고통의 땅에서 살아남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점이다. 남방의 전장에서 돌아온 한 조선 청년이 가르쳐 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라는 노래 한 곡이야말로 바로 이 귀향기의 제목이 된 것만으로도 짐작키 어렵지 않은 그미가 살아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이 원동력을 준 고장이 바로 선천이었다. 후지와라 테이가 간난아이까지 세 아이를 데리고 이곳 선천에서 겪은 조선 체험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을 극복하는 휴머니즘의 승리, 여성전쟁문학의 백미라 할만하다.

후지와라 테이를 비롯한 일본 귀환단은 남정네들이 소련군에게 강제 소환당한 뒤 평안도의 宣川에 이르러서야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宣川 농학교에서 중전을 맞이한 후지와라 테이를 비롯한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후지와라 테이의 경우는 비누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버려진 야채를 주어다가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 행상을 하러 다니다가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李씨 집안과 친해져서 양말을 기워주거나 양복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벌기도 했다. 드디어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엇인가 구걸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목 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¹⁸⁾

의지가 없는 여성의 여행은 공격에 취약한 위험의 표적이며, 안전과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에서 남자와는 전혀 다르다.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고,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역사적 사건보다 당면한 의 귀환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전쟁의 의미를 개인의 귀향의 체험에서 찾고, 특히 식민지였던 조선 땅을 지나는 사권의 체험 속에서 찾

17) 藤原てい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中央公論社, 2006. 321쪽 あとがき

18) 앞의 책 157쪽.

고 있다. 그미는 그 스스로 동아시아 걸친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전쟁을 고발하거나 전쟁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니 하지 못했을까이다. 다만 남편과 헤어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망졸망한 세 자녀를 데리고 기약없는 귀국의 날을 기다리며 낯선 조선 땅을 불안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3-1-2. 전쟁의 주제는 한·일 사이에 과거사문제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지만, 데이의 귀환기 속의 세살짜리 둘째아들 藤原正彦(1943-)의 《國家の品格》(新潮新書)이란 책으로 옮겨서도 이야기할 만하다.¹⁹⁾ 藤原正彦은 이름있는 수학자로 お茶の水大學 교수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 책에서 어렴풋이나마 전쟁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마사히코가 작년 11월 말에 낸 이 책은 학술서적이 아니지만, 반년 만에 100만부가 팔렸다는 화제작으로 관심을 둘 만하다. 중국학계에서는 학술적 평론이 나와 있는데²⁰⁾ 우리 학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여기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탈렌트 수학자의 강연집 같은 것으로 ‘국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 이름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물씬 풍기는 책이다. 서구 근대의 합리주의 정신으로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데서 시작하여 <情緒와 ‘形’의 나라, 日本>과 <무사도의 부활>을 말하고, <국가의 품격>을 말하고 있다. “국제공헌 같은 것은 필요 없고”, ‘향토사랑’과 ‘祖國愛’를 강조한다. 참 엘리트를 기다리고, 천재를 말하는 대목에서는 시대를 한 세기 거꾸로 돌린 우울한 분위기마저 물씬 풍기며, 이런 책에 나라가 열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라는 현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책이 그리움의 정서와 ‘もののあわれ’와 같은 일본문화를 말하고, ‘武士道’ 정신을 강조하는 점에서 일본문화론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은이는 서구에 수년 머물렀다 귀국하면서 자기 속의 논리의 지위가 크게 떨어지고 정서나 ‘形’이 점점 커져 갔다고 전제하면서, 정서라는 것은 교육으로 배양되는 것이며 ‘形’이라는 것은 무사정신에서 오는 행동기준이

19) 藤原て이는 이 귀환기의 예상 밖의 대단한 부수입으로 기상대 직원이었던 남편 新田次郎(藤原寬人1912-)에게 자금을 주어 소설가로 나오키상 수상작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 마사히코를 유명인으로 키웠다. 《國家の品格》는 이 마사히코의 저작이다.

20) 노영희 교수의 발표가 있는 동아시아 비교문화국제학회(2006, 9/10, 中國 上海)에서는 復旦大學 일본학연구소 徐靜波교수가 <《國家の品格》에서 말한 일본문화의 實像과 虛像>이란 글로 발표한 바 있다.

라고 정의한다. 그는 전후의 교육이 “조국에 대한 자긍이나 자신감을 잃도록” 키우고,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구미의 ‘논리와 합리’에 몸을 팔아 국가의 품격을 잃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는 세계를 균질화하는 것이며, 일본은 이 세계의 추세와 과감히 싸워 ‘孤高한 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가 머리말에서 말하는 이런 이념지향의 더 큰 함정은 일본의 특징[國柄]이나 국민성에 호소하는 점이며, 구미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일본 고래의 <정서와 形>을 말하면서 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이웃나라 중국이나 한문화를 제하고 구미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론의 신빙성은 의심된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논한 미의식으로 ‘ものあわれ’론과 가치론으로 ‘무사도’론을 중심으로 문화론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미의식으로 ‘ものあわれ’는 깊은 애상감이 감도는 정취, 무상감을 드러내는 일본의 미학용어로, 18세기에 本居宣長가 《源氏物語》 등 평안시대의 문예정서로 규정한 개념이다. 이 정서를 마사히코는 “인간의 덧없음과 유구한 자연 속에서 변해가는 것에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섬세한 감성”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일본 사람의 두드러진 정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을에 자기 집을 찾아 온 미국 교수가 문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를 듣고 ‘저 시끄러운 소음’ 운운한 보기를 들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교수에게는 가을벌레 울음소리가 소음이었다고 비꼬며, 심지어 “어떻게 이런 놈들에게 전쟁에 지다니?”하고 생각했던 10년전 기억을 되살렸다고 했다. 그가 풀벌레 소리를 즐기는 자연의 감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제 나라와 미국 사람의 개인적 자연의 정서를 비교하여 금세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비약이 위태롭다. 그는 풀벌레 소리에 대한 일본 사람의 정서를 일본 특유의 감성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구미는 물론, 중국과 한국에도 이런 감성은 없는 듯하다는 지적으로 앞에 든 중국 교수로부터 호된 비판에 맞닥뜨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²¹⁾

여기서 일본적 자연 사랑의 형태, 혹은 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벌레 소리에 대한 일본 사람의 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프가디오 한 [小泉八雲]의 <虫の演奏家>라는 수필 이야기를 하고, 《萬葉集》와 《古今集》의 벌레 시들을 보기로 들고 있다. 일본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연사랑에 두드러진 감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萬葉集》 20권 중에서 ‘四季’의 노래가 겨우 2권이던 것이 《古

21) 徐靜波: 《國家の品格》에서 말한 일본문화의 實像과 虛像, 앞의 글.

《今集》에 와서는 20권 가운데 6권으로 늘고 그 편차도 <사랑>의 주제 앞에 <사계>를 두는 변화를 이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연사랑의 특징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풍경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그 풍경의 <이름>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타마쿠라[歌枕]’의 <形>을 열었고, 일본 자연 사랑의 전통을 이룬 것이다.²²⁾ 일본 일기문학의 선구라는 《土佐日記》(935)에서 쓰라유키는 바닷길로 도사에서 교토까지 오는 긴 여행 중에 자연에 아무런 주의도 보내지 않았고, 《古今集》(905)의 편찬자로 노래 수가 가장 많은 그의 봄·가을의 노래 속에서 읊은 자연은 놀랍게도 꽃 6종류(벚꽃, 매화, 황매화 나무, 여랑화, 등골나무, 국화) 새 2종류(피꼬리와 소쩍새)밖에 없다고 한다. うぐいす(피꼬리)나ほととぎす(소쩍새)라는 낱말이 시의 어휘로 전통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타마쿠라[歌枕]’이며, 자연이 아니다. 이 전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이 감각적 즐거움은 정신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藤原正彦가 일본 특유의 정서로 들고 나온 ‘もののあわれ’는 사실은 벌레 소리를 듣고 느끼는 섬세한 감성과 같은 그런 것이기보다는 本居宣長の 철학의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곧 사람의 자연상태를 가리키는 뜻이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곧 마음의 자연상태에 다가가기 위해서 유·불과 같은 漢意(중국혼)를 배제하는 방법이 그 이전의 고대 사람의 마음을 찾아내는 근거가 되었을 터이다. 몰락한 조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마쓰자카의 마을 의사가 된 本居宣長는 그 스스로 무사도 아니며 조년도 아닌 자신을 추상적 상급집단(일본 민족)과 동일시했으며, 극단적 민족주의, 일본 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³⁾ 藤原正彦는 이 ‘もののあわれ’를 말하기 위해서 사쿠라 꽃으로 일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미에는 사계절이 없어 일본 俳句에 나타나는 자연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보기를 들어 일본 사람의 자연의 정서를 특수화했다.

3-1-3. 다음으로 이 책은 일본 정서의 <形>으로서 “武士道の 부활”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이 책의 도전적 저작 의도를 공공연히 천명했고, 지은 이는 스스로 무사도정신의 부활을 20년 이상 이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자랑

22) 加藤周一著, 김태준·노영희 역, 『日本文學史序説』 2권, 126-127쪽 참조.

23) 같은 책, 199-203쪽 참조.

하고 있다. 그는 무사도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무사도의 보기와 함께 특히 新渡戶稻造의 《무사도》를 소개하며 그가 말한 <패자에 대한 공감>과 <劣者에 대한 동정> <약자에 대한 애정>이 최고의 미덕이며, 이야말로 惻隱을 가장 중시했다고 말한다. 이런 전제에서 앞 시대에 일본이 약한 중국을 침략한 것은 무사도정신이 쇠약해진 비겁한 행위였다고 말하는 지은이의 무사도 이해의 불균형은 이런 선한 표정을 지으면서 악독한 한국침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데서 두드러졌다. 이점에서 중국의 徐靜波교수가 일본의 36년간의 한국지배를 거론하여 저자의 무지와 학자적 양식을 개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사라는 말은 중국에도 한국에도 있지만 무사계급 혹은 무사집단이란 것은 鎌倉 막부의 신정권(1192)과 함께 일본에서 두드러진 독자적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鎌倉 막부는 京都와 이중정부로 제1대 장군 때부터 ‘御家人’ 제도를 확립하여 主君에 충성하는 군사문화를 이루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江戸의 徳川幕府로 바뀌면서 武道라는 것이 주로 江戸時代に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사도’라고 하지만, 文道 혹은 선비정신과 같은 무사도는 없다. 일찍이 에도 중기의 대표적 유학자 荻生徂徠(1666-1728)는 “道에는 文도가 있고, 武道라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²⁴⁾ 그는 “성인의 도밖에 따로 국토에 맞는 무사도가 있다는 주장은 필경 무식에서 온 잘못이며, ‘武藝’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文道로서 우리에게선 선비도가 있고, 선비도는 중국에서 전해 온 유학서로부터 이덕무(1741-1793)의 《士小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 전해오고 이어온 학문정신이다. 선비는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벼슬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며, ”성인의 도“라는 뚜렷한 기준과 무한한 선비의 전통과 모범이 있었다.

사무라이가 싸우고 있는 시대에 ‘무사도’란 있을 수 없었다. 사무라이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되면서 ‘무사도’가 생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사도의 교범으로 알려진 <하가쿠레(葉隠れ)>(1710-16)는 佐賀藩의 서기 야마모토 쓰네토모가 구술한 것을 같은 번의 무사인 다시로 쓰라모토(田代陣基]가 기록한 것으로, 그 주지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봉사하는 것이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聞書 第二>)이다. 이렇게 ”내 몸을 주군에게 바쳐 재빨리 죽어서 유령이 되어 주군의 일을 한탄.....” 운운하고, 가장 유명한 결론은 ”무사도라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깨달았다“(<聞書 第一>)는 말로 요약되었다. 결국 <하가쿠레>에서 무사의 마음가짐은 實

24) 《徂徠先生問答書》下

戰에서 割腹으로 옮겨간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학을 창도한 荻生徂徠가 그때 벌써 武道가 아닌 ‘武藝’로 용도폐기한 ‘무사도’를 21세기에 들고 나와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국가’를 말하고 ‘품격’을 말하는 것은 학자로서 품격이 의심되는 일이다. 더구나 이 책의 지은이가 ‘もののあわれ’와 일본 정서의 <形>으로서 “武士道の 부활”을 말하여, 이것이 전쟁을 없애는 수단이 된다(153쪽-)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는 구미정신구조가 ‘대립’에 바탕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의 자연 사랑의 정서는 전쟁을 없애는 열쇠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해에서 藤原正彦의 책이 안고 있는 내용과 이 책이 일본 사회에서 선풍적 인기 속에 읽히고 있는 현실과 역사왜곡과 한반도 전략은 둘이 아님을 직감한다. 일본의 통속적 읽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해나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서야 안정된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일본학은 일본을 외국연구, 지역학으로 지양하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현실을 통합적으로 가늠할 안목을 필요로 한다.

3-2. 한·일 학계의 성과

그런데 근대극복의 대안으로 중세에 주목하는 것은 인문학의 중요한 한 움직임이고 또한 한 가능성이다. 한국문학 쪽에서 조동일(서울대) 교수는 이런 시도로 《중세문학의 재인식》 1-3권(지식산업사, 1999)을 내어 중세의 공통문어와 보편종교에 주목, 生剋論을 시도했고, 국문학자 박희병 교수(서울대)는 《한국의 생태사상》(돌베개, 1999)을 내서 중세의 노장사상에서 새로운 생명사상의 가능성을 찾았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이규보 이래로 한국의 전통사상에 나타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통하여 한국의 생태사상에 주목하고, 특히 18세기 洪大容(1731-1783)의 자연관에 주목하여 그의 <人物均>의 사상에서 생태사상으로 탈근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조동일 교수의 중세인식이 동아시아적 보편종교로서 유교와 불교에 치중하는데 대하여, 박희병교수가 중세의 자연사상 생명사상을 특히 노장사상에서 찾고 있는데 있다. 노장 사상이야말로 중국사상에서도 자연을 철학화한 종교사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생태사상’이 우리 전통의 ‘생명사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이런 중세의 재발견은 근대가 암흑시대로 혹평했던 중세에서 근대가 불러온 근대의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는 자연중시, 생명사상의 가능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문학 연구가 고전

연구를 통해서 학문론으로 통합과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보기라 할만하다.

한편 일본학계에서 주목되는 시각으로 한국과도 관련이 깊은 두 학자의 보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경여자대학 퇴임교수인 鳥居フミ子교수는 淨瑠璃의 전문가로 방대한 淨瑠璃全集을 낸 분인데, 그는 세계에 흩어진 일본의 예능자료를 찾아 정리 소개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특히 그가 출간한 《ソウル大學校所藏近世藝能集》 전6권은 그분의 30년간의 노고의 결실이며, 일본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판본만을 모은 자료집이다. 여기에는 일본에 없는 浮世草子, 狂歌, 合卷, 讀本를 영인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소장의 일본 근세판본 1500종의 자세한 목록의 전모를 밝혀 놓았다.²⁵⁾ 鳥居교수는 대만대학의 일본 예능 자료도 전 5권의 《臺灣大學所藏近世藝文集》(勉誠社, 1981-86)으로 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일본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지만, 한국의 일본학자들이 이의 정리마저도 생각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노교수가 이 일을 맡아했다. 이런 정리는 한국 일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한분을 더 소개하면 요사이 각 일간지에 소개된 藤本行夫 富山大學 교수로, 그는 한국어학 전공자로 특히 한국서지학의 대가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흩어진 한국고서 5만권의 서지를 총 정리하여 經·史·子·集 가운데 集部(《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京都大學出版社)의 출간을 보았고, 이어서 내며, 세계에 흩어진 조선본의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연히 두 사람이 모두 서지작업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지만, 일본의 실증적이고 치밀한 학문방식은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나와는 30년 지기로 나 스스로도 이분들의 흉내내기도 힘든 학자적 태도와 방식에 존경을 보내며 소개를 드린다.

4. 마무리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학문은 스스로의 학문적 여러 관심들을 통해서 가치론적 과거를 재현하고자 하며, 가치론적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맞닿아 있다. 현재의 일본, 현재의 한·일 관계, 현실의 세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죽어 있다. 송강 鄭澈의 <관동별곡>에는

25) 鳥居フミ子; 《ソウル大學校 所藏 近世芸能集》全六卷, 및 《在外和書を訪ねて》, 勉成出版, 2001.

“廬山の 진면목을 다 보지 못하니, 내가 산속에 있기 때문이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산은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정송강은 천하명산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산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서거나, 산 밖 지점에 나와 서야 한다. 문학의 경우를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 그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고전시대에는 넓었고 근대 이후의 문학에서는 좁아졌다. 고전 시대에는 문학은 文·史·哲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근대 이후에 문학의 범위가 크게 좁아진 사정과 까닭에 대한 해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문학이 학문이 되는 통합적 안목이 선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이번 학진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일어일문학과를 중어중문학과와 합하여 새로운 학문체계를 실험하는 변화를 시동했고, 이런 변화를 교육 당국이 받아드려 BK21의 응원이 함께 시동되었다. 한국일본문화학회가 <일본학과 한국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은 같은 인문학의 고민과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특히 현실에 대한 윤리적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학문도 우리의 인문학도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은 통합과학의 길이 될 것이다.

e-mail : yusantj@hanmail.net